

#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연구

—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 among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uthority patterns and Sex-role attitudes.

— The case of married women in Pusan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안선영

Dept. Home Management, Sook Myeong Women's Univ.

Lecture : Seon Young Ahn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perceived by married women wh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uthority patterns and sex-role attitudes changed. Dividing the family system type into two parts by the level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n collected data were examined to test curvilinear and linear hypothesis.

The subjects were 542 married women living in Pusan. The questionnaires included FACES III, Authority Pattern and Sex-role attitude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Mean, T-test, One-way Anova, Scheffe-test and  $X^2$ -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The level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perceived by married women were high.
- 2) There we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uthority pattern, Sex-role attitude among the groups of family system

type I based on the curvilinear hypothesis, but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found in preferred variables among the groups of family system type II based on the linear hypothesis.

3) Among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family type, religion and husband's educational level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groups of family system type II. The percentiles of HH(the level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were high) families were high when the married women's sex-role attitudes leaned toward modern and authority patterns were husband-dominant.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족체계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또 다른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며 각 가족원과 전체로서의 가족이 그 체계내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이론적 관점에서는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일 때 개인 및 가족문제의 발단이 된다고 본다. 가족스트레스, 가족폭력, 이혼, 아동학대등의 문제는 이제 가족의 위기와 해체라는 수준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가족의 역동성과 역기능에 관한 이론화 작업들은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두거나 임상가족의 역기능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왔다(Kantor & Lehr, 1975; Beavers & Voeller, 1983; Olson, Sprenkle & Russell, 1983).

Olson, Sprenkle과 Russell(1979)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가족체계모형(Circumplex Model)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상가족과 역기능가족을 판별해내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은 국내연구에서도 입증(임용우, 1984; 유순덕, 1987; 정민자, 1992) 되었으나 임상가족이 아닌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에는 극단가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 가족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가족체계 유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고승자, 1985; 박금희, 1986; 김진희, 1989; 한유미, 1990; 박경숙, 1993).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정내에서도 가족주기의 발달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가족

의 내적, 외적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원의 권력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체계내에서의 권력작용은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며 체계는 적응기제를 통해서 모든 권력의 행사와 행사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압력에 반응한다. 경직된 권력구조는 가족의 융통성을 떨어뜨리고 응집성을 감소시키며 가족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Galvin, K. M. & Brommel, B. J., 1982). 따라서 부부간의 권위유형이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Nye(1973)는 가족내의 경직된 역할구조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하여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모호하지 않은 역할구조가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남성과 여성역할의 뚜렷한 분화를 지지하는 대신 남성과 여성역할간의 융통성과 역할공유를 지지하는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경우에 응집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성교육의 확대와 여성취업의 증대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도록 하였으며 이는 부부간의 권위유형에서도 평등형을 지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부장적 규범이 내재된 한국가족에서 실제 응집력과 적응력은 권위유형과 성역할태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입장에서 일반적 배경변인, 부부의 권위유형,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관련이 있는가이며 관련이 있는 경

우 이 개념들간의 관계는 선형적이거나 혹은 순환적이거나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가족체계유형 I 과 국내연구에서 제시된 가족체계유형 II에 따라 일반적 배경변인, 부부간의 권위유형, 성역할태도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능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 가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개념과 Circumplex Model

Angell(1936)은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가족통합과 적응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Hess와 Handel(1967)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및 그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분리(separatedness)와 연결(connectedness)의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가족과정(family process)이란 분리와 연결사이의 만족스러운 위치 및 형태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Olson과 그의 동료들은(1979)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개발하였다. 가족의 응집력(choesion)은 가족성원들이 그들의 가족과 분리되거나 연관되는 정도로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한 개인이 가족체계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자율성의 정도를 뜻한다고 하였다(Olson et al, 1983). 가족원간의 정서적인 유대,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의 공동 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 친구와 개인의 사적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 유형, 가족의 전체 오락활동과 개인의 활동 보장 정도로 측정된다. 응집력은 낮은 수준부터 과잉분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매몰(enmeshed)이라는 4가지 수준으로 구분 되어진다. 윤진(1985)은 어느 집단이거나 그 집단의 효율적인 기능과 활동역량은 집단구성원

의 긴밀한 유대관계인 응집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적응력(adaptability)이란 Olson(1986)에 의하면 상황적, 발달적 압력에 대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가족의 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유연(flexible)하고 변화가능한 정도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 리더십,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협상스타일, 역할관계와 분담, 가족 규칙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 부터 경직(rigid), 구조화(structured), 유연(flexible), 혼동(chaotic)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력은 형태발생적(morphogenesis) 속성과 형태안정적(morphostasis) 속성간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Druckman, 1979). 응집력과 적응력의 두차원에서 매우 높거나 낮게 나타난 가족은 역기능적이며 두 중심영역에 있는 균형적인 가족은 모두 적절하게 기능적이라는 곡선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Circumplex Model은 응집력과 적응력의 두차원을 네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응집력과 적응력의 두 차원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4가지 유형의 가족은 '균형적인 가족(Balanced family)'이며 한 차원은 극단적이며 다른 한 차원은 중간에 위치하는 8가지 유형의 가족은 '중간범위가족(Mid-range family)'이고 두 차원에서 모두 극단적인 4가지 유형은 '극단적인 가족(Extreme family)'으로 분류된다. 균형가족은 가족내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에서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 반면 극단가족은 가족 문제를 잘 일으킬 수 있고 역기능적이기 쉽다고 한다. 일반가족이나 정상가족은 역기능적 가족에 비해 균형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치료를 받는 비행청소년(여자)가족, 가출 청소년가족,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집단에서의 가족은 '과잉분리, 혼란'에 속하는 가족이 더 많았다(Druckman, 1979; Portner & Killorin, 1981; Bell, 1982; Green, R. G., Kolvezon, M. & Vosler, N., 1985). 소년범죄 경험이 있는 청소년가족과 일반 청소년가족을 비교한 연구와 부모-자녀관계의 위험이 높은 가족과 낮은 가족

을 비교한 연구(Garbarino, Sebes & Schellenbach, 1985 ; Roick, Henggeler & Hanson, 1986)에서는 '매몰, 혼란'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콜중독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극단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Olson & Killorin, 1984) Olson 등의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임용우(1984)가 균형적 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적 가족의 순서로 청소년의 불안행동 및 부적응 행동의 수준도 높아간다고 하였다.

도수경(1990)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체계유형에 있어서 비가출소녀가족은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그리고 가출소녀가족은 '중간범위의 가족'이나 '극단수준의 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하영(1991)은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은 가족의 응집유형과 직선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의 적응유형과는 곡선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Olson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 하였다. 그외에도 Olson의 가족체계유형을 지지한 연구가 있다(박금희, 1986 ; 유순덕, 1987 ; 박초아, 1988 ; 정민자, 1992 ; 최연실, 1993).

## 2. Circumplex Model에 대한 반론

Beavers와 Voeller(1983)는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Circumplex Model에서 적응력과 가족의 기능과의 관계를 곡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비평하여 직선적 관계로 설명됨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Beavers와 그의 동료는 가족의 적응력은 하나의 능력(competency)으로, 가족성원은 적응력의 성장(growth)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Cameron, 1988). Beavers Systems Model에서 가족체계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심적 상호작용 유형(Centrifugal)과 구심적 상호작용 유형(Centripetal)의 두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1985)도 FACES II를 사용하여 McMaster의 가정환경평가척도(Family Assessment Devices)의 공인타당도를 검사한 결과 FACES의 점수는 건강한 가족인가 병리적인 가족인가와는 관련이 없고 다소 직선적인 모델을 따랐다고 하였다. Watson & Drotinsky(1988)의 연구 결과 과

형적 응집성 및 적응성과 혹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한 Smith(1985)의 결과에서는 가족응집력과 가족만족간의 관계가 곡선적이 아닌 직선적 관계로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김순옥(1990)도 일반가족에서는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김명자(1992)는 문화적 규범으로 가족의 응집력이 높도록 기대되는 문화권에서는 극단이라는 개념정의의 조정을 요함으로 Olson등의 곡선관계 가설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응집과 적응의 수준이 극단적인 때 더 기능적이고(Galvin & Brommel, 1982) 분체가족이 아닌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족의 기능에 있어서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가족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Olson et al, 1986)는 일치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Olson등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가족체계유형을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 유형(LL가족), 응집력은 낮고 적응력은 높은 유형(LH가족), 응집력은 높고 적응력은 낮은 유형(HL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 유형(HH가족)으로 분류한 여러 연구에서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 가족이 기능적이며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 가족의 경우 역기능적이었음이 밝혀졌다(고승자, 1985 ; 홍성애, 1988 ; 김진희, 1989 ; 박경숙, 1993).

## 3. 선행연구 고찰

### 1)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유순덕(1987)의 연구에서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I (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의 차이를  $X^2$ -test한 결과, 극단수준의 가족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에 비해 모의 연령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으며 부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이 역기능화 되기 쉬우며 결혼상태가 재혼이거나, 경제적으로

수입이 적은 가족은 경직·과잉분리된 가족체계유형을 갖는다고 하였다. Olson(1988)은 여성인 경우 신혼기부터 자녀의 청소년기까지 적응력 점수가 점차 감소하여 자녀진수기인 중년기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다가 이 시기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가족적응력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가족체계유형 I은 모의 연령, 부의 교육정도, 결혼상태, 월평균수입, 가족생활주기의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체계유형을 응집력과 적응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4분면으로 분류한 가족체계유형 II의 경우, 김진희(1989)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일 때 응집력 및 적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간에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김진희, 1989; 한유미, 1990). 종교에 따른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고승자, 1985; 김진희, 198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은 가족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홍성애, 1984; 한유미, 1990). 그러나 고승자(198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상호작용유형을 보여준다고 하여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의 취업유무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김진희, 1989; 한유미, 1990). 가족체계유형 II는 자녀수, 사회경제적 지위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유형 I, 가족체계유형 II 간의 관련성 여부는 연구대상과 변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유순덕(1987)과 Olson(1988)의 연구 대상은 임상가족이므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유형 I, 가족체계유형 II와의 관련성을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부부간의 권위유형과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Blood와 Wolfe(1960)는 권력(Power)이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속성이며 타인의 행

동에 영향을 주는 각종의 의사결정 능력속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Olson과 Cromwell(1975)은 사회체계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Galvin과 그의 동료(1982)에 의하면 평등한 가족관계에서는 가족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연구에서 지배적이고 권력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경직된 권력구조는 가족의 융통성을 제한하고 응집성을 감소시키며 가족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응집을 이루기 위해서 각 가족은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 하지 않으면서 친밀성을 허용하는 의사소통 패턴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Hetherington, Stovvie & Ridberg(1971)는 비행 소년 소녀가 있는 가족은 아내지배형 또는 남편지배형이 발견되어지며 평등형인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정상가족은 어느 정도 융통적이며 평등주의적인 권위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정상가족의 경우 견고한 차별적인 권위유형을 갖지 않으며 정상가족의 자녀는 비행청소년 가족의 자녀보다 권력과 권위를 가진다고 하여 각 가족원이 권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은 집단으로서 가족원들이 원하는 목표에 대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Turk(1974)는 권력은 가족원들이 갈등적인 목표를 가지는 가족환경내에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권력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과 탐색이 중단될 때에는 여러 가지 강력한 권력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가족의 친밀성과 의미있는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권위유형에 따라 가족원이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친밀감과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의 권위유형과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관계가 선형적인가 순환적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 3) 성역할 태도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성역할(sex-role)이란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으로서 획득하는 특성들의 복합체를 말

하며(Roper, Labeff, 1980) 성역할태도(sex-role attitude)는 남성, 여성에 기대된 행동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인데, 남성과 여성 역할의 분화를 지지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 역할 간의 융통성과 역할공유를 지지하는 것은 '근대적 태도'로 본다(옥선화·정민자, 1992). 이기영(1987)은 성역할태도를 가부장적 규범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성역할태도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한 가족내의 모-녀간의 가치함의 정도와 딸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초아(1988)에 의하면 딸이 지닌 근대적인 성역할관이 모의 성역할관과 유사할 때 가족의 결속이나 가족내에서의 대화, 혹은 가족내의 권력구조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응집성, 적응성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다.

Nye(1973)는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할구분의 수준을 제안하였다. 즉, 가족내의 경직된 역할구조(예 : 부부의 뚜렷한 역할 구분)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며, 가족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불필요한 강요나 지배없이 필요한 역할이 수행되며 다른 가족원이 언제,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을 수준의 역할구조가 가족원으로 하여금 가족집단 유지에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여 응집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하였다(김명자, 1991에서 재인용).

따라서 남성과 여성 역할의 분화를 지지하는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주부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뚜렷한 부부간의 역할구분이 자율성을 억압하여 한 개인이 가족체계내에서 경험하는 친밀감과 자율성의 정도인 응집력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역할의 융통성 있는 역할공유가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가족의 응집력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가부장적 규범이 내재된 한국가족에서 성역할 태도가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선행적 혹은 순환적 관계인지를 조사하고자 한

다.

#### 4.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부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응집력·적응력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주부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배경변인에 따라 가족체계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1〉 배경변인(주부의 연령, 자녀수, 가족생활주기, 가족형태,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S.E.S.), 주부의 학력,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가족체계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에 따라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가족체계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 2〉 권위유형에 따라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가족체계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역할 태도에 따라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가족체계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척도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 정도를 평가하고 동시에 가족체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David H. Olson, Joyse Portner과 Yoav Lavee(1985)에 의해 개발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척도(FACES-Ⅲ :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versionⅢ)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응집력은 총 10문항으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0.751$ 이었으며 적응력은 상관

도가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한 후 총 9문항으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0.664$ 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거의 항상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권위유형 척도

권위유형척도는 선행연구(Wolfe, 1959; 윤현봉, 1985; 이진숙, 1989; 전춘애, 1989)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의 권위유형은 Wolfe(1959)가 제시한 상대적 권위의 지표(The Relative Authority: RA)와 부부가 가정내에서 공유하는 권위의 정도(The Degree of Shared Authority: DS)에 의해 분류되었다. RA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에 1점,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권력이 커진다. DS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과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에 1점, '대체로 남편이 결정'과 '대체로 부인이 결정'에 2점, '의논해서 부부공동 결정'에 3점을 주어 합한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었다. 조사대상자의 부부간의 권위유형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를 고려하고 Wolfe(1959)의 분류에 근거하여 최하위점수\*(M-SD)\*(M+SD)\*최상위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인지배형은 RA가 최하위 점수~(M-SD)인 경우이고 남편지배형은 RA가 (M+SD)~최상위인 경우이다. 공동형은 RA가 (M-SD)\*(M+SD)이면서 DS가 50% 이상인 경우이며 자율형은 RA의 범위는 공동형과 같으며 DS가 50% 이하인 경우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0$ 로 높게 나타났다.

### 3) 성역할 태도 척도

성역할 태도 척도는 선행연구(이기영, 1987; 이진숙, 1989)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매우 찬성'에 1점, '매우 반대'에 5점을 주어 합산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48$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를 고

려하여 최하위점수\*(M-1/2SD)\*(M+1/2SD)\*최상위 점수를 기준으로 전통적인 집단, 중도적인 집단, 근대적인 집단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해운대구 S유치원, 진구 B유치원, 동래구 K, S국민학교, M중학교를 선정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의표본추출 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질문지를 작성하여 1992년 12월~1993년 1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7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615부 중 542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주요변수의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적용하였고 연구문제의 가부 결정을 위하여 T-test,  $X^2$ -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며 동시에 각 변수간 어느 하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P<.05$ 수준에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숙명여자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연구문제 1>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일반적인 경향

주부가 지각하고 있는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집력 수준에 있어서 평균이 38.77로 나타났다. 가능점수 범위(10~50)와 비교해 보면 가족응집력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적응력 평균은 31.12로 가능점수의 범위(9~45)와 비교해 보면, 적응력은 응집력 보다는 다소 낮으나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연구문제 2> 주부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 유형 I, II

Olso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이론에 근거하여 응

〈표 1〉 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 적응력 점수

변인	평균	S. D	중앙치	최소값	최대값	가능점수의 범위
응집력	38.77	5.62	39.41	17	50	10-50
적응력	31.12	5.13	31.19	15	45	9-45

집력과 적응력 점수를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4집단(최하위점수\* $(M-SD)$ \* $M$ \*( $M+SD$ )\*최상위점수)으로 분류한 후 다시 3집단으로 범주화한 가족체계유형 I 은 균형가족에 54.1%가 속하고 중간범위 가족에 29.7%,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수준의 가족에 16.1%가 속했다. 이러한 분포는 일반가족을 중심으로 볼때 유순덕(1987)의 연구에서 50.4%, 38.5%, 11.1%, 도수경(1990)의 연구에서 51.4%, 33.6%, 15.0%, 정민자(1992)의 연구에서 61.1%, 25.8%, 13.1%, 손정영·김순옥(1991)의 연구에서 66.6%, 18.7%, 9.9%, 최연실(1993)의 연구에서 59.1%, 29.7%, 16.1%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족체계유형 II 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응집력과 적응력을 각각 2집단으로 구분하여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 유형(LL가족), 응집력은 낮고 적응력은 높은 유형(LH가족), 응집력은 높고 적응력은 낮은 유형(HL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 유형(HH가족)으로 분류하였다. LL가족은 30.2%, LH가족은 15.1%, HL가족은 13.7%, HH가족은 41.1%로 나타났다.

#### 〈연구문제 3〉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체계 유형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으로 분류한 가족체계유형 I 과 일반적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집력과 적응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4분면을 이용하여 분류한 가족체계유형 II 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II 는 〈표 2〉에서와 같이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 $P<.05$ )가

나타났다.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HH가족에서 핵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족형태가 가족체계유형 II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다른 연구(고승자, 1985; 김진희, 1989; 한유미, 1990)와 상반된 결과이다. 종교와 가족체계유형 II 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고승자(1985)의 연구와는 달리 가족내 공통된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 $P<.05$ )가 나타났는데, HH가족에서는 종교가 있는 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종교가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강화시켜 기능적으로 만드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승자(1985)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상호작용유형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홍성애(1988), 한유미(1990)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일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아진다고 하여 여러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변인(S.E.S.)의 한 하위변인인 남편의 학력에 따라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HH가족의 비율이 많았다. 주부의 연령, 자녀수, 가족생활주기, 주부의 취업유무, 주부의 학력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II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진희(198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부의 취업은 가족체계유형 II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연구문제 4〉 권위유형과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가족체계유형

조사대상자의 부부간의 권위유형은 남편지배형이 14.37%, 공동형이 39.27%, 자율형이 33.81%, 부인지배형이 4.6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최규련(1991), 이정연(1991)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설2,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며 변인의 하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P<.05$ 수준에서 Scheffe-test 를 하였다.

권위유형에 따른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은 〈표 3〉에



서와 같이 모두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다. 응집력은 Scheffe-test 결과 남편지배형집단과 아내지배형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가족은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친밀성을 허용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남편지배형집단이 응집력이 높다는 것은 우리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응력은 남편지배형집단과 공동형집단이 아내지배형집단, 자율형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지배형일 때 응집력과 적응력점수가 높으며 아내지배형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현대 한국부부간에 내재되어 있는 남편위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정연(1992)은 '가장의 중심성(centrality of the patriarchy)'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가장이라는 지위에 중심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정이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권위유형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I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위유형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II

〈표 3〉 권위유형에 따른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변인	집 단	응 집 력		적 응 력	
		평균(빈도)	S-t*	평균(빈도)	S-t*
권위 유형	아내지배형	36.06( 63)	a	28.79( 62)	a
	자율형	37.94(167)	ab	30.14(167)	a
	공동형	39.82(196)	c	32.22(194)	b
	남편지배형	40.75( 73)	bc	32.61( 71)	b
	계	(499)		(494)	
	F값	10.025***		11.665***	

\* Scheffe-test

\*\*\* P<.00

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내지배형인 경우에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 LL가족의 비율(6.4%/12.7%)이 가장 높았으며 남편지배형인 경우에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 HH가족의 비율(8.1%/14.7%)이 공동형인 경우(18.9%/39.0%)보다 높았다. 권위유형이 평등형인 경우에 응집력 및 적응력이 높다고 한 Galvin과 그의 동료(1986)의 이론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남편위주의 가

〈표 2〉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II

	가족체계유형집단	LL가족 N(%)	LH가족 N(%)	HL가족 N(%)	HH가족 N(%)	계* N(%)
가족 형태	핵 가족	113(23.5)	52(10.8)	53(11.0)	169(35.1)	387( 80.5)
	확대가족	36( 7.5)	9(12.7)	20( 4.2)	29( 6.0)	94( 19.5)
	계 N(%)	149(31.0)	61(12.7)	73(15.2)	198(41.2)	481(100.0)
	비 고	df=3				X <sup>2</sup> =8.79*
가정의 공통된 종 교	유	91(18.1)	41( 8.2)	53(10.5)	155(30.8)	340( 67.6)
	무	60(11.9)	28( 5.6)	23( 4.6)	52(10.3)	163( 32.4)
	계 N(%)	151(30.0)	69(13.7)	76(15.1)	207(41.2)	503(100.0)
	비 고	df=3				X <sup>2</sup> =10.98*
남편의 학 력	중졸이하	5( 1.0)	4( 0.8)	1( 0.2)	9( 1.8)	19( 3.8)
	고 졸	65(12.9)	16( 3.2)	21( 4.2)	59(11.7)	161(32.0)
	대졸이상	81(16.1)	49( 9.7)	54(10.7)	139(27.6)	323(64.2)
	계 N(%)	149(29.9)	69(13.8)	76(15.2)	205(41.1)	503(100.0)
	비 고	df=6				X <sup>2</sup> =14.86*

\* missing data에 의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남

\* P<.05

〈표 4〉 권위유형에 따른 가족체계유형Ⅱ

변인	가족체계유형 집단	LL 가족 N(%)	LH 가족 N(%)	HL 가족 N(%)	HH 가족 N(%)	계 N(%)
권위 유형	아내지배형	31( 6.4)	5( 1.0)	6( 1.2)	19( 3.9)	61( 12.7)
	자율형	59(12.2)	22( 4.6)	28( 5.8)	53(11.0)	162( 33.6)
	공동형	43( 8.9)	25( 5.2)	29( 6.0)	91(18.9)	188( 39.0)
	남편지배형	12( 2.5)	13( 2.7)	7( 1.5)	39( 8.1)	71( 14.7)
	계 N(%)	145(30.1)	65(13.5)	70(14.5)	202(41.9)	482(100.0)
비고			df = 9	$X^2 = 33.39^{***}$		

\*\*\* P&lt;.001

치관이 팽배한 한국 가족에서 부부간의 권위유형이 남편지배형인 경우에 더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편지배형의 사례가 공동형에 비해 적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손정영·김순옥(1991)의 연구에서도 권력의 측면에서 부부문제가족과 정상가족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권력측면에서 부부문제가족과 정상가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태도 점수는 평균이 54.79로 중간점 54점에 근사하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이기영, 1987; 이진숙, 1989)를 참고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태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를 고려하여 최하위 점수\*(M-1/2SD)\*(M+1/2SD)\*최상위점수를 기준으로 전통적 집단, 중도적 집단, 근대적 집단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이 29.7%, 중도적인 집단이 33.0%, 근대적인 집단이 27.9%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응집력 ( $p<.01$ )과 적응력 ( $P<.001$ )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이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았으며 Scheffe-test 결과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집단과 전통적인 집단, 중도적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 가부장적 규범에 얽매지 않을수록 응집

〈표 5〉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변인	집단	응집력		적응력	
		평균(빈도)	S-t	평균(빈도)	S-t
성역할 태도	전통적	38.34(141)	a	30.09(137)	a
	중도적	38.14(194)	a	30.29(194)	a
	근대적	39.95(159)	b	32.92(156)	b
	계	494		487	
F 값	5.266**		15.689***		

\*\* P&lt;.01

\*\*\* P&lt;.001

력과 적응력이 높다고 하겠다.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체계유형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체계유형Ⅱ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HH가족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족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초야(1988)의 연구에서 딸이 지닌 근대적인 성역할관이 모의 성역할관과 유사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응집성, 적응성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한 결과와 같았다. 이상의 결과로 〈가설2, 3〉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가족체계유형Ⅱ에서 권위유형이 남편지배형인 경우에 HH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서구 가족의 경우와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각각의 점수만을 놓고 본

〈표 6〉성역할 태도와 가족체계유형 II

변인	가족체계유형 집단	LL 가족 N(%)	LH 가족 N(%)	HL 가족 N(%)	HH 가족 N(%)	계 N(%)
성역할 태도	전통적	47( 9.9)	9( 1.9)	25( 5.3)	51(10.7)	132( 27.8)
	중도적	69(14.5)	23( 4.8)	28( 4.8)	69(14.5)	189( 39.8)
	근대적	28( 5.9)	29( 6.1)	20( 4.2)	77(16.2)	154( 32.4)
	계 N(%)	144(30.3)	61(12.8)	73(15.4)	197(41.5)	475(100.0)
비고			df=6	X <sup>2</sup> =24.97***		

\*\*\* P<.001

다면 오늘날의 한국가족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성역할관을 가지는 주부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은 높으나 권위유형에 있어서는 남편지배적인 집단이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각각의 점수가 높아 가정내에서의 실제 행위측면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들의 지각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적인 배경변인, 부부간의 권위유형,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관련이 있는가이며 관련이 있는 경우 이 개념들간의 관계는 선형적인가 혹은 순환적인가 하는 것을 밝혀 기능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주부 542명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 응집력(Cronbach'α=.751) 적응력척도(.664), 권위유형척도(.820), 성역할 태도척도(.848)를 측정 도구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e-test, X<sup>2</sup>-test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 주부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의 수준은 비교적 높다. 둘째, 주부가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유형 I은 거의 과반수를 넘는 가족이 정상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가족에 속하고 그다

음이 중간범위가족이고, 역기능적 가족인 극단가족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유형 II는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HH)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LL)가족, 응집력은 낮고 적응력은 높은(LH)가족, 응집력은 높고 적응력은 낮은 (HL)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배경변인, 권위유형,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족체계유형 I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체계유형 I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핵가족이거나 가정내 공동된 종교가 있는 경우,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체계유형 II에서 HH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집력이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측정하며 적응력은 변화가능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핵가족이 더 기능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가정내의 공동된 종교는 가족원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적응력은 가족원의 상황적 발달적 압력에 대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종교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II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변인인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HH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하여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권위유형이 남편지배형일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점수가 높았으며, 권위유형이 남편지배형일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HH가족의 비율이 높아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가족과는 달리 권위유

형이 남편지배형일때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각각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차원에서의 교육이 가족을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집된 연구 대상자를 부산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유의표집을 하였으나 주부의 연령 분포가 고르지 못하였다는 점, 셋째, 가족체계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이 바람직하나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부부간의 권위유형만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나 자녀를 포함한 가족전체 구성원의 권력이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성역할 태도의 근대적, 전통적인 정도만으로 가족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고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고승자(1985), 가족체계상호작용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6.
- 3) 김순옥(1990),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43-156.
- 4)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도수경(1990),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소녀간의 가족관계연구-순환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년기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8) 박금희(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초아(1988), 청소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손정영·김순옥(1991), 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45-366.
- 11)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이정연(1992), 한국 도시 남편이 지각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권력자원, 권력과정, 권력결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15)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3.
- 16) 한유미(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계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Alfred S. F., Arlene Utada, M & Margaret R.M. (1987),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Are "Rigid" : Are These Families Either "Disengaged"

- or "Enmeshed," or Both?, *Family Process*, 26, 131-148.
- 19) Antonovsky A & Sourani T(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79-92.
- 20) Beavers, W. R. & Voeller, M. N.(1983), Family Models :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7.
- 21) Cameron, L.(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7, 73-92.
- 22) Clark, J.(1984), The family types of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23) Druckman, J. M.(1979), A family oriented policy and treatment program for female Juvenile status offend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627-636.
- 24) Galvin, K. M. & Brommel, B. J.(1982), Family communication : The cohesion and change II, Scott, Foreman and Company.
- 25) Garbarino, J., Sebes, J., & Schellinbach, C.(1985), Family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5, 174-183.
- 26) Hess, R. D. & Handel, G. The Family as a psychosocial organization, In G. Handel(ed), *The Psychosocial Interior of the Family*, London : Georg Allen and Unwin, 1967.
- 27) Olson, D. H., Sprenkle, D.,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8.
- 28) Olson, D. H., Russel, C. & Sprenkle, D.(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29) Olson, D. H.(1986), Circumplex Model VII :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September), 337-351.
- 30) Olson, D. H.(1988), Family types, family stress, and family satisfaction : A family development perspective, In David M. Klein & Joan Aldous. (1988), *Social stress and Family Development* N. Y. ; London, The Guilford press.
- 31) Rodick, J. D., Hengglar, S. W. & Hanson, C. L. (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32) Smith, D. E.(1986),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o family satisfaction : A Study of family stress pile up, Ph.D.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3).